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육실습경험이 중등예비음악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2023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 지 연

교육실습경험이 중등예비음악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김 명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임 지 연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3~5학기 예비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실습경험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여 교육실습의 효과를 검증하고, 교육실습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 4월 말 교육실습이 끝남과 동시에 교육실습을 경험한 62명과 교육실습을 앞둔 68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 음악교수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교육실습경험에 대한 네 가지 영역으로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2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검정, 상관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해 교육실습경험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 교육실습을 경험한 62명의 수업지도 및 참관 횟수, 만족도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음악 교사들의 교육실습경험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은 ‘음악 교과 지도’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생활지도’, ‘대인관계’ 영역은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생활지도 영역에서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낮은 효능감을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들의 교수 능력에 대한 신념은 높여주지만, 학생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 제고에 있어서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방증하며,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실천 지향적인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결정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

육실습을 경험한 62명은 교직으로의 진로 결정 변화에 있어 상승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교육실습이 교직에 대한 인식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예비음악 교사들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음악교수효능감의 모든 하위 요인은 ‘진로 결정’ 요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음악 교과 지도’, ‘학생 이해 및 존중’ 순으로 ‘진로결정’ 요인과 높은 관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음악교수효능감을 독립변수로 두고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살펴본 결과, 음악교수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32.3%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음악 교사들이 교직으로의 진로 결정에 있어 음악교수효능감이 중요히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비음악 교사들의 음악교수효능감 증진은 교직으로의 진로 준비 행동을 촉진해 예비교사의 역량 증진과 함께 향후 교사가 되어 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넷째,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의 만족도가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회귀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29.4%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업지도 및 참관 횟수는 음악교수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두 변인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실습 환경 개선을 위해 예비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업 참관 및 지도 경험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교육실습은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학교 현장과 교육대학원의 교육 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실습 생태계를 새로이 조성해야 한다. 예비음악 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기를 바라며, 효과적인 교육실습을 통해 학교·학생에 대한 현장 역량이 함양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교육실습	5
2. 음악교수효능감	10
3. 진로결정수준	15
4. 선행연구 고찰	19
III. 연구방법	24
1. 연구 대상	24
2. 연구 절차	27
3. 연구 도구	28
4. 자료 분석 방법	33
IV. 연구 결과	34
1. 음악교수효능감	34
2. 진로결정수준	44
3.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49
4. 예비음악 교사의 교육실습경험	51

V. 결론 및 제언	61
1. 연구 결과 요약	61
2. 논의 및 결론	63
3. 제언	66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II-1> 관찰 실습, 참가 실습, 실무 실습의 목적과 내용	9
<표 II-2>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비교	14
<표 III-1> 연구 대상의 재학 중인 교육대학원	25
<표 III-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26
<표 III-3> 연구 내용 및 연구기간	27
<표 III-4> 음악교수효능감에 대한 문항 체계 표	30
<표 III-5> 음악교수효능감 하위 영역별 신뢰도	30
<표 III-6>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문항 체계 표	31
<표 III-7> 진로결정수준 하위 영역별 신뢰도	32
<표 IV-1> 음악교수효능감 기술통계 분석 결과	35
<표 IV-2>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의 차이	37
<표 IV-3>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 교과 지도 영역의 문항 분석	38
<표 IV-4>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 차이	40
<표 IV-5>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 교과 지도 영역 차이	41
<표 IV-6>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인성교육 영역 차이	41
<표 IV-7>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학생 이해 및 존중 영역 차이	42
<표 IV-8>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교사 간의 관계 영역 차이	43
<표 IV-9>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학부모와의 관계 영역 차이	43
<표 IV-10> 진로결정수준 기술통계 분석 결과	44
<표 IV-11>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45
<표 IV-12>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영역의 문항 분석	46
<표 IV-13>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미결정 요인 차이	47
<표 IV-14>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결정 요인 차이	48

<표 IV-15>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49
<표 IV-16> 음악교수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50
<표 IV-17> 예비음악 교사의 교육실습경험에 대한 빈도분석	52
<표 IV-18> 교육실습 후 교직 진로 결정 강도 변화	53
<표 IV-19> 만족도가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57
<표 IV-20> 만족도가 음악교수효능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58
<표 IV-21> 예비음악 교사의 교육실습경험에서 도움을 받은 점	6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실습은 교원양성기관에서 학습한 내용을 교육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 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적성 여부를 재점검하여 진로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얻게 한다. 교육실습을 통해 교직에 대한 매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사로서의 적성이나 자질이 맞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나승일 외, 2012, p. 15). 그런 의미에서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교직에 대해 진로결정을 신중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해주며, 향후 교직으로 진출하였을 때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실천적인 교육과정으로 가치가 있다.

예비교사의 역량은 교직에서의 성공적 직무수행을 위해 미래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4주간 진행되는 교육실습을 기점으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김은진, 이현우, 2018, p. 538). 교사의 직무는 매우 다차원적이지만, 미래 교사로서 예비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 가운데 교과 지도, 생활지도,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교과 지도는 교사의 핵심 직무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생활지도는 학생의 성장 및 발달 특성의 이해를 기반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지도 영역이며, 대인관계는 학급관리자에 더하여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중재자로서 학부모와 소통, 교사 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역량을 의미한다(교육부, 2021, p. 2). 교육실습을 통해 함양된 역량은 예비교사가 향후 교사가 되었을 때 맞닥뜨릴 여러 교육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진로결정은 현재 상황 이후에 자신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방향을 명백히

설정했다는 의미로,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구영애, 서명선, 안성식, 2020, 재인용 p. 54). 이러한 진로결정에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진로와 관련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을 뜻하는 ‘자기효능감’이 작용하는데, 이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행동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신원애, 정상녀, 김경란, 2016, 재인용 p. 218). 진로를 위한 준비 행동은 직무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발전하여 예비교사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김은진, 이현우, 2018, p. 552). 이러한 예비교사의 교사 역량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교수효능감이라 일컫는다.

교수효능감은 교사가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으로, 교사의 교수 행동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전문성의 주요한 요인이다(박성혜, 2016, p. 76).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더욱 효과적인 교수법을 시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교수 실재를 변화시켜 학생들의 학습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아영, 2012, p. 68). 즉, 음악교수효능감은 음악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성공적인 음악 교육을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음악교수효능감 개발은 높은 진로결정수준으로 이어져 예비교사들의 진로 준비에 대한 준비행동을 향상시키고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하며,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실습은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것은 향후 교사가 되어 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므로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 중요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예비음악 교사 교육실습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실습 실태조사(조나

영, 2019), 교육실습에 대한 예비음악 교사의 인식 연구(조성대, 2022; 이수경, 2016), 교육실습경험이 음악 교사로서 자질에 미치는 영향(고유정, 2020; 박세희, 2018; 윤언경, 2018; 정자현, 2017)등 예비음악 교사의 교육실습에 대한 경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교육대학원생을 단순히 사범대학교의 하위집단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학기 구분 없이 연구해 왔으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육실습 대상 학기인 3~5학기생의 실습 유무 차이 비교를 통해 교육실습의 효과성에 주목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설문 시점의 설계에 있어 교육실습 직후 설문이 이루어진 연구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교육실습이 예비음악 교사의 역량 증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실증적인 분석을 하려면, 교육 실습 직전·직후로 실습경험 유무 집단의 차이를 정확하게 평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3~5학기 중등예비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실습경험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여 교육실습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예비음악 교사들의 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교육실습 환경 개선에 유의미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실습을 경험한 예비음악 교사와 그렇지 않은 예비음악 교사는 음악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교육실습을 경험한 예비음악 교사와 그렇지 않은 예비음악 교사는 진로결정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예비음악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교육실습을 경험한 예비음악 교사의 수업 지도 및 참관 횟수, 만족도와 음악교수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실습

1) 교육실습의 개념

교육실습은 국가교육 양성기관(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육학과 등)에서 교직과정 이수를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이다. 교육실습은 교육 양성기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앞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배운 교직 이론과 전공지식을 심화시키고, 학교조직의 상황과 학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과정이다(최창섭, 2018, p. 3).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실습을 관찰, 참가, 실제 지도를 통해 교수 학습지도, 학생생활지도, 학교 및 학급경영 등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교사의 역할을 익히고 연구하는 과정으로 교사 양성과정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보았다. 또한 교육실습 활동은 교육의 전문적 이론과 실천과의 관계에서 그 의의가 성립된다고 하였다(김희규, 김순미, 안성주, 2021, p. 16). 이처럼 교육실습은 ‘가르치다’와 ‘실천하다’의 의미를 함축하며 실제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교육실습은 용어 그대로 ‘교육에 관한 실습’이다. 따라서 교육실습은 교수·학습 실습 혹은 학생 지도 실습 등의 영역보다 넓은 의미의 실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다수 학자들은 교육실습 과정의 여러 영역들 중 어떤 영역을 강조하여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육실습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형식적 의미의 관점에서 보자면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사범계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 이수자에 대하여 일선 학교에서의 현장실습을 목적으로 한 필수과정이다. 이러한 정의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보다는 의무적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강경석 외, 2001, p. 7).

둘째, 실천적 의미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학의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배운 교양교육, 전공 교육, 교직 교육 등의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이론을 유·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는 과정이다. 이는 교육과 실습이라는 두 단어로 구성된 교육실습에서 실습에 주안점을 두면서 학교 현장을 통해 이론의 반성적 고찰 이론과 실제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는 시각이다(강경석 외, 2001, p. 8).

셋째, 경험적 의미의 관점에서 보자면 학교 현장에서 선배 교사들이 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보고, 듣고, 따라 해보는 과정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현장실습이다. 또한 교과과정에서 배운 일반교육학과 교과교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현장 실습을 통해 검증해봄으로써 살아 있는 경험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한상호, 유평수, 서재복, 최지은, 2009, p. 70). 이 견해는 경험 또는 체험에 주안을 두며, 교육실습에서 실습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실습생의 입장에서 교육적 경험을 얻는 연습 활동으로 성장·발달 단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실수가 없도록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수업의 효율성 증진이 필요하다(이지연, 손희권, 2005, p. 17).

넷째, 자기 점검 의미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래의 교사로서 자기의 교직 적성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점검과정을 통하여 교육실습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강경석 외, 2001, p. 8). 또한 교육실습을 통하여 교직에 대한 매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교사로서의 적성이나 자질이 맞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나승일 외, 2012, p. 16). 이 견해는 교육실습의 진로 지도적 성격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직이 적성에 맞는 학생에게는 교

직 진출을 촉진시키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에게는 다른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이지연, 손희권, 2005, p. 15).

이러한 네 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교육실습은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실습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교육실습의 목적

교육실습의 목적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품성과 자질을 갖추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임할 수 있는 실제적·실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교육실습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나승일 외, 2012, p. 15).

첫째, 교육 현장에서 교육 현상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교사로서의 올바른 교육관과 태도를 갖게 한다. 둘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소양을 재검토함으로써 진로선택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기회를 얻게 한다. 셋째, 교사로서의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보완해야 할 지식이나 기술,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볼 과제는 무엇인지를 발견할 기회를 얻는다. 넷째, 학생과의 만남을 통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와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법을 체득함과 동시에 올바른 학생관을 갖게 한다. 다섯째, 학습을 직접 계획·지도·평가해 봄으로써 교육의 제반 이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기회를 통하여 올바른 학습지도 능력을 갖게 한다. 여섯째, 학급을 직접 경영해 봄으로써 학급구조와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학급경영의 방법을 체득하여 학급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게 한다. 일곱째, 학생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연구 활동, 학사 행정 업무 등 교사로서의 폭넓은 역할을 체험해 봄으로써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최창섭, 김재덕, 2018).

종합해보면, 교육실습의 목적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습지도, 학급경영, 학사 행정업무 등 폭넓은 경험을 쌓게 하여 교원으로서의 적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교직에 관한 현장 이해와 올바른 교육관과 태도를 증진하는 데 있다.

3) 교육실습 유형

교육실습은 교육실습생의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관찰 실습, 참가 실습, 실무 실습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나승일 외, 2012, p. 17). 관찰 실습이란 수업의 계획과 실행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단계로, 해당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의 주변 환경, 학생들의 모습, 현직 교사의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현직 교사들에 대한 수업 관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관찰한 사항들은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기록하여 자신의 수업 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최창섭, 김재덕, 2018, p. 24). 또한 관찰 실습은 학교 교육의 전반적인 운영과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실습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전반을 제 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나승일 외, 2012, p. 18).

참가 실습이란 수업 실습의 바로 앞 단계로써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참가하여 실체를 경험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더욱 깊고 넓게 이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관찰이 제3자적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참가는 학생의 학교 활동이나 교육활동에 적극 개입하여 체험적으로 이해를 심화하는 실습행위다. 또한 이 단계에서도 관찰은 계속되어야 한다. 즉 관찰하여 기록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단계라 규정할 수 있다(최창섭, 김재덕, 2018, p. 26).

실무 실습이란 관찰 실습과 참가 실습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학생들을 교육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실무 실습을 실제 실습, 교단 실습

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예비교사는 학급경영, 생활지도, 교과 지도, 창의적 체험활동지도 등을 직접 실험해 봄으로써 자기 능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실무 실습은 관찰 실습과 참가 실습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의 직무를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독자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나승일 외, 2012, p. 20). 관찰 실습, 참가 실습, 실무 실습의 목적과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관찰 실습, 참가 실습, 실무 실습의 목적과 내용

실습의 유형	목적	경험하는 내용
관찰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심리상태 및 요구의 이해 - 해당 학교의 환경 이해 - 학교 조직의 분위기와 특성 이해 - 교수법 및 학생지도 방법 이해 - 수업 중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현황: 설립배경, 교훈, 목표, 주요사업, 학생 및 학급 수 - 학생의 실태 - 교육과정 운영 - 학습지도, 생활지도, 창의적 체험 활동, 학급경영 현황
참가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경영의 이해 - 수업진행과 평가 방법의 이해 - 학생의 생활지도의 이해 - 학생,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관계 - 현직 교원의 직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활동: 학급경영, 교과 지도, 학교행사, 사무처리 절차 - 학습지도 - 학급경영 - 생활지도
실무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계획 및 진행 능력 배양 - 학습지도 능력의 배양 - 생활지도 능력의 배양 - 학급경영 능력의 배양 - 창의적 체험 활동의 지도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도 - 생활지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 학급경영

2. 음악교수효능감

1) 교수효능감

교수효능감은 교사효능감을 구성하는 차원으로서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사효능감과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교사효능감은 반두라(Alver Bandura, 1925)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교사라는 특정 집단에 적용하여 형성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특수한 과제 상황에서 자신의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 및 신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을 교사에 적용하면, 특수한 교수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발달을 얼마나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사의 기대 수준이자 개인적 지각을 반영하는 심리적 개념인 것이다. 즉, 교사효능감은 반두라가 제안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교직 상황에 적용한 교사의 특수한 자기효능감에 해당된다(임성택, 2011, p. 43).

반두라는 인간이 과제 상황에서 형성하게 되는 기대를 ‘결과기대’와 ‘효능기대’,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결과기대(outcome-expectancy)는 특정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평가이다. 둘째, 효능기대(efficacy-expectancy)는 개인이 그 결과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은 두 가지 기대에서 각기 다른 수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행동이 특정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믿을 수 있더라도 자신이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임성택, 2011, p. 44).

한편, 애쉬튼과 웹(Ashton & Webb, 1984)은 반두라가 제안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교직 상황에 적용하여 교사의 특수한 자기효능감으로 교사효능감을 개념화하였다. 그들은 교사효능감을 단일차원이 아닌 2차원적 구성개념으로 발전시켰는데, 반두라가 제시한 두 가지 기대인 결과기대와 효능기대

에 대응하는 것으로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개인적 교사효능감’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교수효능감이란 ‘교사들의 교수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사의 결과기대’로 정의하였고, 개인적 교사효능감은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개인적 효능기대’로 정의하였다(임성택, 2011, p. 47). 이처럼 교사효능감을 2차원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의 차원이 서로 다르게 교사의 행동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 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학생의 실패 원인을 학생의 지능, 불우한 가정환경, 비협조적인 행정 등의 외부 요소로 돌리기 때문에 교사는 책임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반면, 개인적 교사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학생의 실패에 대해 개인적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죄책감,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각각의 교사효능감은 서로 다르게 교사의 행동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신명희 외, 2020, p. 343). 개인적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교사 자신이 학생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여 성취감을 맛본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에서도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학생을 포함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반면, 교사효능감이 낮은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 자주 실망하고 좌절을 느끼며, 학생의 실패를 외적인 환경에 이유를 두기 때문에 자신의 수업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에 있어서 특별한 목표를 가지지 않으며,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전략도 세우지 않는다. 또한 교사 자신이 학생에 대해 무력감을 경험하며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한다(신명희 외, 2020, p. 344).

교사효능감을 심리 측정학적으로 연구한 깁슨과 데μπο(Gibson & Dembo, 1984)는 30문항으로 구성된 교사효능감 척도를 개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두 개의 요인으로 수렴됨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일반적 교수효능감’과

‘개인적 교수효능감’으로 명명하여 앞서 애쉬튼과 웹의 연구처럼 교사효능감의 2차원적 구성개념을 지지하였다(임성택, 2011, p. 52). 이 중 일반적 교수효능감은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결과기대 효능감으로 ‘학교 교육 효과’에 대한 교사의 기대를 의미하고, 개인적 교수효능감은 교사 스스로가 학습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효능기대인 ‘교사 개인의 효과’를 의미한다(이상은, 김현수, 2014, 재인용 p. 55).

즉, 종합하면 교수효능감은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결과기대와 자신의 교사 효과성에 대한 효능기대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개인적 기대와 효과성에 대한 교사의 판단, 기대, 신념 등을 의미하는 바, 교사의 주관적 지각의 과정을 반영하는 심리적 개념이므로 실제 객관적으로 사정되는 교사 효과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임성택, 2011, p. 59).¹⁾

한편,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교수 역량의 하위 구성요소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서는 교수역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수역량이란 교사가 교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교과 및 교육학 지식과 관련된 부분, 수업과 관련된 부분, 학생 성장 및 발달 특성 이해와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 행정 및 학급 운영, 학부모 소통, 교원공동체로서의 기타 업무수행과 자기 계발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음악교수역량은 교육에 관한 일반적 수준의 교수역량과 음악 교과 영역에서 필요한 고유의 교수 역량으로 나누어 구분될 수 있다(최미영, 2014, p. 3).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두라가 제시한 ‘효능기대’에서 확장된 김순과 뎀보의 교사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효능기대인 ‘개인적 교수효능감’ 개념을 ‘교수효능감’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2) 음악교수효능감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음악교수 실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교수효능감은 심리적 구인이기 때문에 음악 교과에 대한 스트레스와 음악 교사의 사기 및 의욕 저하는 음악교수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음악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가 지니고 있는 음악교수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음악활동에 무의식적으로 전이되거나 음악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음악교수효능감을 이해하는 것은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최미영, 2014, pp. 193-194). 다음 <표 II-2>는 최미영(2014)의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교수 행동에 대한 비교를 정리한 결과이다.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수업을 전개하는 방식에 있어 다양한 발문과 교구들을 수반하여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 참여형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악 수업의 주를 이루는 활동에서 학생들의 즉각적인 반응에 민첩한 피드백을 주며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인 수업을 진행한다. 이처럼 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 따라 실제 수업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며, 음악교수효능감은 음악교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 -2〉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와 낮은 교사의 비교

구분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교사
음악 교과 지도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며 수업 흐름에 자연스러운 동기 유발 활동을 전개한다. - 수업 목표의 안내에 있어 발문이나 학습목표와 관련이 있는 활동을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동기유발이 없고 수업 목표의 제시가 없다. - 전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단순히 상기시키는 수준의 질문만을 제공한다.
	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하며 수업은 대부분 발문으로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은 교사의 안내와 지시에 따라 진행되며,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된다.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신체 표현 중 2~3가지 활동을 통합하여 수업하고 방법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한다. - 활동 안에 이해 영역이 녹여있어 활동을 하면서도 음악적 이론을 접목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활동을 반복하고, 활동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수업 주제와 관련성이 적다. -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즉흥적으로 진행한다.
학생과의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정도로 밝은 표정과 다정한 말투를 사용한다. -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답 가능한 눈높이의 질문을 한다. - 틀렸다고 바로 지목하지 않고 왜 정답이 아닌지를 피드백 해 줌으로써 정답에 가까운 답을 유도한다. - 특정 학생을 지목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이 아는 대답에 한해서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적이고 권위적인 말투를 자주 사용한다. - '네' 또는 '아니요'로 대답하는 발문을 주로 하며 발문 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교사가 바로 대답을 한다. - 학생들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닌, 외워서 대답을 해야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 - 오답에 대한 피드백은 없고, 정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한다.

수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cream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는 동영상과 감상곡,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줄 때만 사용하며 동선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수업을 진행한다. - 오르프 악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악기, 교구를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교육자료인 I-Scream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컴퓨터가 있는 교단 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수업 동선이 제한적이다. - 악기의 사용이 제한적이고, 충분히 구비가 되었음에도 음악 교구의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	--	---

3.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문승태, 2006, pp. 21).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진로결정수준은 한 개인이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기 위한 전 단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진로결정수준은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에서 어느 한 지점, 수준을 의미한다. 이때 진로 확신의 정도가 높은 상태를 ‘결정’, 확신의 정도가 낮은 상태를 ‘미결정’ 상태로 규정한다(문승태, 2006, pp. 22-23).

진로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태가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에 대한 계획, 방향, 의사결정, 행동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상태를 뜻한다. 진로결정수준은 특정 진로를 자신에 맞는 진로라고 확신하고, 진로진출을 하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이거나 계획수립 등의 행동이 이

투어지는 수준이나 상태를 말한다(김선화, 현영섭, 2018, 재인용 p. 989).

예비교사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 향상과 도전에 초점을 맞추며 향후 진로 입직 후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신혜경, 김수영, 2020년, p. 93).

종합하면,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을 예비음악 교사에 적용하면, 진로결정수준이란 교직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로 분명히 설정하여 교직에 대한 진로 진출을 촉진시키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행동이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 진로 결정

진로 결정이란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진로선택을 하기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심리적인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탐색하고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선택한다(김봉환 외, 2017, p. 143).

진로 결정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해리스(Harris, 1995)는 직업 선택이 자아 인식과 직업에 관한 지식을 통해 자아와 직업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결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정이 되어도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문승태, 2006, p. 24). 진로결정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택시점에서 결정을 초점에 두고 직업에 입문하기 위한 방향성을 뜻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진로결정은 현재 상황 이후에 자신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방향을 명백히 설정했다는 것으로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과 흥미·가치관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여 향후 졸업 후의 구체적인 직업 분야

에 관한 결정을 뜻하는 개념이라 설명할 수 있다(구영애, 서명선, 안성식, 2020, 재인용 p. 54).

또한 진로 결정에는 자기효능감이 작용한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고자 할 때 자신을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며, 나아가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신념이나 기대감을 갖게 한다(문승태, 2006, p. 18).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 관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테일러와 베헤(Taylor & Betz, 1983)는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발달 분야에 응용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높은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진로미결정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자기효능감이 진로미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렌트와 헤켓(Lent & Hackett, 199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렇듯 자기효능감은 과제와 문제해결 능력, 목표 달성과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진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조현재, 2015, p. 62).

이를 예비음악 교사에 적용해본다면,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한 교수효능감이 높은 예비음악 교사일수록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진로결정이 높기 때문에 진로결정수준과 자기효능감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신원애, 정상녀, 김경란, 2016, p. 218).

2) 진로 미결정

크리티스(Crites, 1981)에 따르면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으로 개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구성요소보다는 정보의 부족, 진로결정에 대한 학습 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체험 요소 부족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부족 요소의 보충을 강조하였다. 한편 살로모네(Salomone, 1982)는 진로미결정이란 25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며, 젊은 개인들은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진로미결정이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하였다. 또한 로카치오(Locascio, 1964)는 진로미결정이 진로에 대한 지식·기술·인식의 부족이나 과업 수행에서의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인식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문승태, 2006, p. 22). 이처럼 진로미결정은 진로를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진로결정이 중단되거나 지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정서적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불안이다. 불안은 진로문제해결에 필요한 자기 정보와 직업 정보를 분명히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조현재, 2015, p. 61).

종합하면 교직으로의 진로결정에는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이해, 교직에 대한 이해가 작용한다. 교직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신의 교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진로미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실습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교사들이 음악 교사로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직으로의 진로결정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4.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이 중등예비음악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실습과 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 교육실습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교육실습과 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중등예비음악 교사의 음악교수 불안 및 음악교수효능감의 차이를 조사한 윤언경(2018)은 서울시 소재의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1~5학기 118명을 대상으로 실습 경험이 있는 54명과 아직 실습하지 않은 64명을 조사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실습경험이 있는 예비음악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실습 경험이 없는 이들보다 교수 불안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음악 활동, 음악 평가, 전문적 책임 요인에서도 낮은 불안의 수준을 보였다. 또한 교육실습경험이 있는 예비교사들은 실습 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들보다 음악 교과 지도와 학생 이해 요인에서 더 높은 정도의 음악교수효능감을 갖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음악교수 불안과 음악교수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예비음악 교사가 함양해야 할 필수 역량인 음악 수업 전문성과 관련되어 음악 교과 지도에 높은 교수효능감을 갖을수록 음악교수시 겪는 불안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예비교사의 음악교수불안을 감소시키고 음악교수효능감을 높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교수 경험이 예비교사의 교수 불안을 낮추고 음악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비교사들의 현장 경험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교육실습이 예비중등과학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 및 과학교과교육학지식(PCK)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신대리라(2010)는 서울 소재

사범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 59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검사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과학교수효능감과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과학교수효능감은 과학교수 자기효능감과 과학교수 결과기대감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을 하기 전보다 하고 난 후 자신의 교수활동에 대한 신념이 크게 상승하여 자신의 과학 활동을 지도하는 능력에 대해 더욱 믿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비교사들은 실습 경험을 통해 과학 교수 활동에 대한 불안을 덜어내고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교사의 전공과 실습 학교의 공학 여부에 따라 과학교수효능감과 과학 교육학지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화학 전공의 평균이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 학교의 공학인지에 따른 과학교수효능감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통제집단이 없는 단일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로 교육실습의 정확한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실습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교육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통제 집단과 교육실습을 경험한 실험 집단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교육실습경험이 사회과 예비교사의 수업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한 김재우(2014)는 교육실습의 다섯 가지 경험 요소가 예비교사의 수업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교육실습을 나가는 사회과 예비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실습경험은 수업 전문성의 네 가지 하위 영역인 지식과 이해, 수업 기획 능력, 수업 실행 능력, 전문성 제고 노력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육실습의 다섯 가지 경험 요소 중 지도교사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는 수업 전문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보며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경험이 예비교사의 교수 전문성 신장에 큰 도움을 주므로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실천 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실습 현장

에서 지도교사에 대한 교사연수나 실습 전 예비교사에 대한 사전지도 강화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2) 교육실습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연구

교육과정의 경험적 측면에서 교육실습이 교직 선택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서하나(2008)는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을 거치면서 교직 선택 결정을 강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약화할 수도 있다고 하며 동기가 변화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교육실습을 경험한 106명을 대상으로 교직 선택 결정 강도 및 동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사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교직 선택 결정 강도는 강함, 보통, 약함, 없음, 미결정의 5가지 명명척도를 사용하여 파악한 후, 교직 선택 결정 강도의 변화를 ‘강화’, ‘유지’, ‘약화’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교직 선택 결정 강도는 교육실습 전에는 ‘보통’이 가장 많았으나, 교육실습 후 ‘강함’이 가장 많아졌다. 또한 교육실습 전 ‘미결정’을 선택했던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 후 미결정 인원이 0명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교육실습 이전 ‘강함’, ‘보통’, ‘미결정’에서 교육실습 이후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없음’으로 약화된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교직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실습 전 교직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 이후 선택 여부를 확실히 하였다. 이는 실제 현장을 경험할 기회인 교육실습이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며 예비교사들에게 진로결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실습경험이 예비음악 교사의 교육실습 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고유정(2021)은 비대면 교육실습을 다녀온 예비음악 교사

들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대면 실습경험, 교육실습 만족도,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차이와 비대면 교육실습경험이 교육실습 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비대면 교육실습 경험 요소로 지도교사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수업 및 참관 실습, 수업지도안 작성의 네 가지 변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조사 결과 비대면 교육실습경험의 네 가지 요소와 교육실습 만족도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음악교육 전공 수업 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진로결정수준과 교육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지도교사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 수업 및 참관 실습, 수업지도안 작성 또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도 예비음악 교사들의 음악교육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반면, 교육실습의 네 가지 경험 요소와 진로결정수준은 학생과의 관계와 수업 및 참관 실습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실습 교육환경에서는 제시한 네 가지 경험 요소보다는 프로그램 활용, 미디어 리터러시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끝으로 연구자는 비대면 교육실습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며 추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으로 다시 전환될지 아니면 비대면 수업의 효과성을 강화하여 비대면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위와 같이 교육실습과 교수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들의 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일집단의 교육실습 사전·사후 비교

변화와 연구 대상에 있어 교육대학원생은 사범대학교의 하위집단으로 학기의 구분 없이 연구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교육실습 대상 학기이면서 교과 교육론을 이수한 교육대학원 3~5학기생의 차이 비교를 통해 교육실습의 효과성에 주목한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실습을 경험한 음악교육 대학원생과 교육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음악교육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차이를 살펴보고, 교육실습이 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교육실습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기에 따라 음악교수효능감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에 의해 1, 2학기를 제외하였고, 교육실습 대상 학기이면서 전공 필수 교과 교육론을 이수한 3~5학기생으로 한정하였다. 교육실습경험의 정확한 평정을 위하여 실습이 끝남과 동시에 설문하였으며, 3~4월에 교육실습을 경험한 예비음악 교사 62명과 실습을 앞둔 예비음악 교사 6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는 지인들을 통해 해당 학교의 연구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순 무선 표집 방법과 음악교육 대학원 19곳의 행정실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13개 학교의 동의를 얻은 후, 온라인 설문지 URL을 배포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설문의 비교 연구 집단 확보는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진행하였고²⁾ 바로 직전에 실습을 완료한 대상자 62명과 실습을 앞둔 대상자 66명의 응답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수된 설문 응답은 총 134부이지만 연구 대상 조건인 3~5학기만을 선별하여 총 128부를 본 연구의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음 <표 Ⅲ-1>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128명의 지역별, 학교명을 분류해놓은 것이며, <표 Ⅲ-2>는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이다.

2) 설문 시점에 대한 설계는 교육실습이 대부분 4, 5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4월 28일~5월 1일로 설계하였다. 이 기간 전후로 교육실습을 직전에 마친 예비교사와 5~6월에 앞둔 예비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확보하여 정확한 평정을 하도록 했다.

<표 III-1> 연구 대상의 재학 중인 교육대학원

지역	학교	교육실습(N=128)		인원수
		유(n=62)	무(n=68)	
서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	-	1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2	4	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6	2	8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7	2	9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6	10	26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3	5	8
경기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4	1	5
충청남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	6	7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	-	1
충청북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	10	11
전라남도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3	-	3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교	1	-	1
광주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4	4
부산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5	3	8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	-	1
경상북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19	19

<표 Ⅲ-2>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항목	세부항목	교육실습(N=128)		응답 수	백분율(%)
		유(n=62)	무(n=68)		
성별	남성	4	9	13	10.2
	여성	58	57	115	89.8
재학 중인 학기	3학기	17	49	66	51.6
	4학기	12	9	21	16.4
	5학기	33	8	41	32
연령대	20대	42	48	90	70.3
	30대 이상	20	18	38	29.7
전공	건반악기	19	26	45	35.2
	관현악	12	10	22	17.2
	성악	14	8	22	17.2
	작곡, 이론과	9	9	18	14.1
	국악	8	13	21	16.4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절차는 크게 준비, 구성, 수행, 분석, 정리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연구절차의 내용 및 기간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연구 내용 및 연구기간

연구절차	연구 내용	연구기간
준비	- 연구 주제 선정 -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2021.08 - 2022.12
구성	- 문헌 고찰 -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수립 - 연구 진행절차 정리 - 설문 내용 및 검사도구 제작 - 연구 대상 선정 및 섭외	2021.12 - 2022.04
수행	- 설문 내용 배포 및 수집 - 오프라인 설문지 배포 및 수집	2022.04 - 2022.06
분석	- 수집한 자료 통계처리 및 분석 - 연구 결과 해석	2022.06 - 2022.09
정리	- 결과의 해석에 따른 결과 도출 - 논문 최종 정리 및 완성	2022.09 - 2022.12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예비음악 교사의 일반적 특성, 교육실습 유무에 따라 예비음악 교사의 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수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였다.

1) 교수효능감 측정 도구

본 연구의 교수효능감 설문지는 최미영(2014)이 초, 중등 음악 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측정하도록 개발한 척도를 윤언경(2017)이 예비교사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수정한 것을 기반으로 보완하였다. 이 검사의 하위척도는 음악 교사의 직무수행 영역인 음악 교과 지도, 생활지도, 대인관계 총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³⁾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수효능감은 총 19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0문항을 추가하여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추가한 10문항은 음악지도에 관한 것이 8문항, 생활지도에 관한 것이 2문항이다. 음악 교과 지도 영역의 하위요인은 음악 교과 지도 전반에 해당되는 16문항, 생활지도 영역에서는 인성교육 3문항과 학생 이해 및 존중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인관계 영역에서는 교사 간의 관계 3문항과 학부모와의 관계 3문항으로 총 29문항을 구성하였다.

음악 교과 지도 영역에서 추가한 8문항은 다음과 같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 세대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 및 정보교육 확대 방침(교육부, 2022, p. 10)에 따라 음악 교과 지도의 하위 문항으로 ‘교사의

3) 먼저 교과 지도는 교사의 핵심 직무로 예비교사 자신의 교수효능감에 대한 평가이다. 두 번째로, 생활지도 영역은 학생의 성장 및 발달 특성의 이해를 기반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생활지도 활동에 대한 자신의 효능감에 대한 평가이다. 세 번째로, 대인관계 영역은 학급 관리자에 더하여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중재자로서 학부모와의 소통, 교사 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다(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2021, p. 2).

디지털 역량'을 알아보는 2문항과 '나는 수업에 필요한 음악 실기 능력에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는 교사가 될 수 있다', '나는 수업 한 차시를 계획하는데 있어 도입-전개-정리 내용을 잘 조직하여 수업의 흐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나는 다양한 발문을 하여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다'를 추가 구성하였다. 또한 윤언경(2017)의 연구에서 음악교수 불안과 음악교수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음악교수 불안 척도 설문지의 문항을 참고하여 3문항을 추가 구성하였다. 추가 구성한 하위 문항은 '나는 45~50분간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수업 내용의 양을 계획하여 시간 내 학습 분량을 마칠 수 있다', '나는 공개 수업을 하게 되면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 '나는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다. 수정한 문항으로는 음악 교과 지도의 하위문항으로 1번 '나는 음악 수업과 관련된 적절한 동기유발 활동을 할 수 있다'를 '흥미 있는 동기유발을 조직'으로 수정하였고, 3번 '나는 학생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를 '나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알기 쉬운 설명과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자신이 있다'로 수정하였다. 9번 문항에는 디지털 미디어 '구글 클래스룸, 카훗, 멘티미터'와 같은 원격 수업 도구를 활용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에 관한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생활지도의 하위 문항으로는 '나는 수업 중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상담하는 데 자신이 있다' 문항을 추가하였다.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교사 간의 관계 하위 문항으로 '나는 동료 음악 교사들과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를 '나는 동료 교사와 교수 방법을 공유하고 수업 나눔을 통해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할 것이다'로 설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표 III-4> 음악교수효능감에 대한 문항 체계 표

영역	하위요인	문항 수
음악 교과 지도		16
생활지도	인성교육	3
	학생 이해 및 존중	4
대인관계	교사 간의 관계	3
	학부모와의 관계	3
전체		29

음악교수효능감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표 III-5>와 같이 영역별 문항들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하위영역별로 음악 교과 지도가 .894, 인성교육이 .797, 학생 이해 및 존중이 .704, 교사 간의 관계는 .691, 학부모와의 관계는 .783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수효능감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2로 Cronbach's α 가 0.60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여 문항 제거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III-5〉 음악교수효능감 하위 영역별 신뢰도

음악교수효능감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음악 교과 지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	.894
생활지도	인성교육	17, 18, 19	3	.797
	학생 이해 및 존중	20, 21, 22, 23	4	.704
대인관계	교사 간의 관계	24, 25, 26	3	.691
	학부모와의 관계	27, 28, 29	3	.783
전체		1~29	29	.922

2) 진로결정수준 측정 도구

예비음악 교사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오시포 외(Osipow, Carney & Barak, 1976)가 개발한 ‘진로미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국내 실정에 알맞게 번역한 것을 본 설문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본래 진로결정의 미결정성과 확신성을 측정하는 두 가지 하위척도로, 진로결정 확신의 정도를 측정하는 2문항과 진로미결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16문항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문항 중에 6문항을 삭제하고, 부정 문항을 긍정 문항으로 바꾸어 진로결정 정도 6문항과 진로미결정성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으로 수정하여 순서를 재구성하였다.⁴⁾

진로결정수준 정도 측정을 위한 설문지의 모든 항목의 ‘진로’라는 용어는 설문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 교사 진로에 대한 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음악 교사’라는 단어로 수정하였다.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4) 문항을 삭제한 이유는 사전 예비 설문을 들었을 때, 이해가 어렵거나 중복되는 의미의 문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으로 답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진로 미결정은 6문항 모두 역
 문항으로 구성되어 역채점을 하였으며, 미결정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III-6>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문항 체계 표

영역	문항 수
미결정	*6
결정	6
총	12

<표 III-7>은 진로결정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낸 것으로, 미결정은 .907, 결
 정은 .813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진로결정수준의 Cronbach's α 는
 .902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사용한 최종 설문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신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III-7> 진로결정수준 하위 영역별 신뢰도

진로결정수준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미결정	*3, *4, *7, *8, *11, *12	6	.907
결정	1, 2, 5, 6, 9, 10	6	.813
전체	1~12	12	.902

3) 측정 도구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는 세 번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먼저 지도교수와 설문지를 제작 후, 주변의 교육실습을 완료했거나 앞둔 예비음악 교사 5인에게 설문지의 응답 소요 시간, 설문지 문항 중 이해가 어렵거나 모호한 표현들, 삭제가 필요한 단어나 문장이 있는지 확인받았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항 수정 혹은 삭제를 거쳐 1차 수정 후, 다시 한 번 설문지를 예비음악 교사들에게 사전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수정 및 보완된 문항을 문서화하여 음악교육과 교수에게 의뢰한 후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을 추가 보완하였다. 교육실습을 경험한 예비음악 교사들의 실습에 대한 만족도, 도움을 받은 영역, 실습 전후의 변화, 교수효능감의 문항 추가, 진로결정수준의 미결정 문항과 결정 문항의 구분을 설문자가 이해하기 쉽게 통합하여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수정 과정을 거치며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높일 수 있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연구도구를 통해 수집된 128부의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28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p < .05$ 에서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의 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사(reliability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셋째, 예비음악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응답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넷째,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검정을 하였고,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영역은 독립표본 t-test로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문항 분석을 하였다.

다섯째, 예비음악 교사의 일반적 특성인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예비음악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분석을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과 단순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교육실습을 경험한 예비음악 교사의 수업 참관 및 지도 횟수, 만족도와 음악교수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분석을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음악교수효능감

1)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는 예비음악 교사들의 음악교수효능감의 일반적 응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표 IV-1>과 같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n은 설문 응답자의 인원수이며, M(mean)은 평균값, SD(standard deviation)은 표준편차를 뜻한다. 이를 토대로 항목별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음악교수효능감의 영역 중 대인관계(M=4.07)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생활지도(M=3.79), 음악 교과 지도(M=3.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예비음악 교사들은 대인관계 영역 중 교사 간의 관계(M=4.35)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나타냈으며, 생활지도 영역 중 인성교육(M=3.47)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효능감을 나타냈다. 이는 예비음악 교사들이 교원 양성기관에서 음악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습득과 동료 예비교사들과의 협력은 충분한 경험을 하지만, 학생 이해 요인에 있어 경험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수효능감을 가졌음을 나타낸다.

<표 IV-1> 음악교수효능감 기술통계 분석 결과

영역	하위요인	n	평균(M)	표준편차(SD)
음악 교과 지도		128	3.70	0.496
음악 교과 지도 전체		128	3.70	0.496
생활지도	인성교육	128	3.47	0.684
	학생 이해 및 존중	128	4.11	0.526
생활지도 전체		128	3.79	0.544
대인관계	교사 간의 관계	128	4.35	0.445
	학부모와의 관계	128	3.79	0.602
대인관계 전체		128	4.07	0.424
음악교수효능감 전체		128	3.85	0.413

2)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의 차이

예비음악 교사들의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 검정을 하였다. 차이를 나타낸 영역 안에서는 각 집단의 문항 분석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또한 음악교수효능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각 전공 집단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공별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독립표본 t-test로 검정하였다.

다음 <표 IV-2>는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전체 음악교수효능감의 차이 결과이다. 먼저, 음악 교과 지도 영역에서는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t=2.075, p<.05$)가 나타났다. 교육실습경험이 있는 집단은 평균 3.79점으로 교육실습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 3.61에 비해 음악 교과 지도 효능감이 높았다. 이는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운 전공 교과교육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천해봄으로써 자신의 음악 교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비음악 교사들은 교육실습의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교사 간의 관계’에서 비교적 높은 효능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원양성 기

관과 교육실습 과정에서 예비 동료 교사들, 지도교사와 상호교류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주목할 점은 생활지도 영역의 인성교육 하위요인에서는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낮은 효능감을 나타냈다. 이는 교원양성 기관에서는 학습할 수 없었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교육실습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깊은 성찰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은 교과 지식, 수업지도, 인성 항목에 비해 학습자 이해, 현장 이해 항목이 현저히 낮은 이해 수준을 보여(교육부, 2021, p. 7)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교육실습생의 자기평가 점수가 평균 4.15 수준(Likert 5점)으로 대부분 영역에서 4점 이상이었지만, 학생 이해 및 생활지도는 평균보다 낮아 교육실습에서 생활지도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연구결과(서재복, 2010, p. 62)와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음악 교과 지도 영역을 제외하고는 교육실습의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0.069, p>.05$).

<표 IV-2>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의 차이

구분		<i>n</i>	평균(<i>M</i>)	표준편차(<i>SD</i>)	<i>t</i>	<i>p</i>	
음악 교과 지도	유	62	3.79	0.435	2.075	.040*	
	무	66	3.61	0.535			
생활지도	인성교육	유	62	3.42	0.707	-0.746	.457
		무	66	3.52	0.665		
	학생 이해 및 존중	유	62	4.10	0.521	-0.219	.827
		무	66	4.12	0.534		
대인관계	교사 간의 관계	유	62	4.38	0.458	0.609	.544
		무	66	4.33	0.436		
	학부모와의 관계	유	62	3.79	0.634	0.024	.981
		무	66	3.79	0.575		
음악교수효능감 전체	유	62	3.88	0.385	0.669	.505	
	무	66	3.83	0.440			

**p*<.05

3)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 교과 지도 영역의 문항 분석

다음 <표 IV-3>은 앞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음악 교과 지도 영역 안에서 교육실습경험의 유무에 따른 응답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문항 2번 ‘나는 수업 한 차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 도입-전개-정리 내용을 잘 조직하여 수업의 흐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3번 ‘나는 45~50분 간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수업 내용의 양을 계획하여 시간 내 학습 분량을 마칠 수 있다.’, 8번 ‘나는 수업 관련 디지털 미디어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데 자신이 있다.’, 9번 ‘나는 원격 수업 시 다양한 원격 수업 도구(구글 클래스룸, 카훿, 멘티미터, 패들렛 기타 등)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자신이 있

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번과 3번 문항은 교육 내용의 조직과 범위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실제 수업을 계획하면서 실행해 본 교육실습경험자가 교수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t=2.018, p<.001$). 이는 교육대학원 전공 교육과정에서 수업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한 차시의 수업내용 조직과 범위를 계획하는 교육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8번과 9번 문항은 디지털 교수 매체의 활용 능력에 대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있어 교육실습경험의 유무에 따라 집단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t=3.415, p<.001$). 이를 통해 예비음악 교사들이 음악 외적인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낯선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 동영상 편집 및 PPT 제작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유정, 2020, p. 58)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 방침에 따라 디지털 매체 활용 능력은 예비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예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어느 한 시기에 급속히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을 통해 천천히 발달(박성혜, 2003)한다는 맥락에서 예비음악 교사들의 음악교수효능감을 높은 수준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디지털 교육의 체계적인 사전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IV-3>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 교과 지도 영역의 문항 분석

구분		평균(M)	t	p
1. 나는 음악 수업 주제와 관련된 흥미 있는 동기 유발을 조직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유	4.00	0.867	.388
	무	3.89		
2. 나는 수업 한 차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 도입-전개-정리 내용을 잘 조직하여 수업의 흐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유	4.02	2.018	.046*
	무	3.77		
3. 나는 45~50분간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수업 내용의 양을 계획하여 시간 내 학습 분량을 마칠 수 있다.	유	3.98	3.808	.000***
	무	3.47		

4. 나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알기 쉬운 설명과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자신이 있다.	유	3.77	0.011	.991
	무	3.77		
5. 나는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차를 고려하여 수업할 수 있다.	유	3.47	-0.341	.734
	무	3.52		
6. 나는 수업에 필요한 음악 실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는 교사가 될 수 있다.	유	3.82	0.644	.521
	무	3.73		
7. 나는 공개 수업을 하게 되면,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유	3.60	1.111	.269
	무	3.41		
8. 나는 수업 관련 디지털 미디어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데 자신이 있다.	유	3.69	3.415	.001**
	무	3.08		
9. 나는 원격 수업 시 다양한 원격 수업 도구(구글 클래스룸, 카훿, 멘티미터, 패들렛 기타 등)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자신이 있다.	유	3.42	2.866	.005**
	무	2.89		
10. 나는 다양한 발문을 하여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다.	유	3.73	0.097	.923
	무	3.71		
11. 나는 학생들의 음악 수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유도할 수 있다.	유	3.95	0.695	.489
	무	3.86		
12. 나는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유	4.13	0.831	.408
	무	4.03		
13. 나는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질문과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유	3.68	1.345	.181
	무	3.50		
14. 나는 음악 수업에서 학생의 활동 또는 반응에 대한 긍정적이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유	3.92	0.045	.964
	무	3.92		
15. 나는 학습 목표와 내용,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학습 내용 및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유	3.95	1.416	.159
	무	3.79		
16. 나는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을 유지 시킬 수 있다.	유	3.53	0.696	.488
	무	3.44		

* $p < .05$, ** $p < .01$, *** $p < .001$

4)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의 차이

다음으로 <표 IV-4>는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의 차이를 보이는 전공 집단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악을 전공한 집단을 제외하고는 각 집단에서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음악교수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 차이

구분	전공	교육실습	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음악교수효능감 전체	건반	유	19	3.81	0.429	0.374	.711
		무	26	3.76	0.440		
	관현악	유	12	3.85	0.276	0.135	.894
		무	10	3.83	0.432		
	국악	유	8	4.30	0.380	1.573	.132
		무	13	3.97	0.518		
	성악	유	14	3.73	0.196	-1.675	.110
		무	8	3.91	0.320		
	작곡	유	9	3.93	0.428	0.792	.440
		무	9	3.76	0.448		

다음 <표 IV-5>는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 교과 지도의 차이 결과이다. 분석 결과 ‘국악’을 전공한 집단만 음악 교과 지도 효능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300, p<.05)가 나타났고, 그 외의 전공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음악 교과 지도 영역 차이

영역	전공	교육실습	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음악 교과 지도	건반	유	19	3.64	0.456	0.684	.497
		무	26	3.54	0.508		
	관현악	유	12	3.73	0.407	1.003	.328
		무	10	3.52	0.575		
	국악	유	8	4.29	0.424	2.300	.033*
		무	13	3.78	0.530		
	성악	유	14	3.75	0.346	0.351	.729
		무	8	3.81	0.417		
	작곡	유	9	3.81	0.294	1.251	.229
		무	9	3.50	0.671		

* $p < .05$

다음 <표 IV-6>은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생활지도 영역의 하위요인인 인성교육의 차이 결과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공별로 교육실습을 경험했을 때와 경험하지 않았을 때 인성교육 효능감의 수준이 낮아지는 집단도 있고 높아지는 집단도 있어 전공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인성교육 영역 차이

영역	하위요인	전공	교육실습	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생활지도	인성교육	건반	유	19	3.30	0.785	-0.735	.467
			무	26	3.46	0.700		
		관현악	유	12	3.28	0.547	-1.803	.086
			무	10	3.67	0.444		
		국악	유	8	4.17	0.642	1.648	.116
			무	13	3.67	0.694		
		성악	유	14	3.33	0.434	-1.495	.151
			무	8	3.63	0.452		
		작곡	유	9	3.37	0.841	0.464	.649
			무	9	3.19	0.852		

다음 <표 IV-7>은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생활지도 영역의 하위요인인 학생 이해 및 존중 차이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공에 따른 교육실습 차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학생 이해 및 존중 영역 차이

영역	하위요인	전공	교육실습	n	평균(M)	표준편차(SD)	t	p
생활지도	학생 이해 및 존중	건반	유	19	3.95	0.504	-0.685	.497
			무	26	4.06	0.554		
		관현악	유	12	4.04	0.367	-0.042	.967
			무	10	4.05	0.550		
		국악	유	8	4.63	0.401	1.639	.118
			무	13	4.27	0.525		
		성악	유	14	3.95	0.462	-0.898	.380
			무	8	4.13	0.423		
		작곡	유	9	4.28	0.643	0.372	.715
			무	9	4.17	0.625		

다음 <표 IV-8>은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대인관계 영역의 하위요인인 교사 간의 관계 차이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공에 따른 교육실습 차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교사 간의 관계 영역 차이

영역	하위요인	전공	교육실습	n	평균(M)	표준편차(SD)	t	p
대인관계	교사 간의 관계	건반	유	19	4.37	0.414	1.391	.171
			무	26	4.19	0.423		
		관현악	유	12	4.56	0.410	1.343	.194
			무	10	4.30	0.483		
		국악	유	8	4.33	0.563	-0.697	.494
			무	13	4.49	0.443		
	성악	유	14	4.17	0.467	-1.018	.321	
		무	8	4.38	0.452			
	작곡	유	9	4.52	0.444	0.199	.845	
		무	9	4.48	0.338			

다음 <표 IV-9>는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대인관계 영역의 하위요인인 학부모와의 관계 차이 결과이다. 예비음악 교사들은 교사 간의 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낮은 효능감을 나타냈지만, 전공에 따른 교육실습 차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학부모와의 관계 영역 차이

영역	하위요인	전공	교육실습	n	평균(M)	표준편차(SD)	t	p
대인관계	학부모 와의 관계	건반	유	19	3.95	0.714	1.046	.301
			무	26	3.76	0.513		
		관현악	유	12	3.78	0.478	-0.662	.516
			무	10	3.93	0.625		
		국악	유	8	4.13	0.589	0.901	.379
			무	13	3.85	0.741		
	성악	유	14	3.40	0.526	-1.260	.222	
		무	8	3.71	0.576			
	작곡	유	9	3.78	0.645	0.134	.895	
		무	9	3.74	0.521			

2. 진로결정수준

1) 기술통계

다음 <표 IV-10>은 전체 128명 예비음악 교사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결정수준은 전체 평균 $M=3.58$ 이며, 이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미결정’의 평균은 $M=3.42$, ‘결정’의 평균은 $M=3.73$ 으로 결정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미결정은 부정 문항으로 되어있어 역채점을 하였기 때문에 미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예비음악 교사들의 진로결정수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0> 진로결정수준 기술통계 분석 결과

진로결정수준	최소값	최대값	평균(M)	표준편차(SD)
미결정	1.33	5.00	3.42	1.015
결정	1.17	5.00	3.73	0.766
전체	2.08	5.00	3.58	0.798

2)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차이

예비음악 교사들의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로 검정하였다. 그리고 진로결정수준 척도 12문항에 대한 각 집단의 응답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전공 집단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공별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독립표본 t-test로 검정하였다.

다음 <표 IV-11>은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결과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은 $M=3.71$ 로 경험하지 않

은 집단의 M=3.45보다 높게 나타나 교육실습이 진로결정수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843, p>.05$)

<표 IV-11>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구분		<i>n</i>	평균(<i>M</i>)	표준편차(<i>SD</i>)	<i>t</i>	<i>p</i>
미결정	유	62	3.58	1.029	1.640	.104
	무	66	3.28	0.988		
결정	유	62	3.85	0.770	1.658	.100
	무	66	3.62	0.752		
진로결정수준 전체	유	62	3.71	0.791	1.843	.068
	무	66	3.45	0.791		

3)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영역의 문항 분석

다음 <표 IV-12>는 진로결정수준 12문항에 대해 실습 경험의 유무에 따른 응답을 비교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평균 점수는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미결정 문항 11번 ‘언젠가는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아직은 내가 마음에 드는 진로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에서만 실습 경험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t=2.457, p<.05$).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문항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영역의 문항 분석

구분		평균(M)	t	p
1. 나는 음악 교사로 진로를 결정했기 때문에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	유	4.05	1.278	.204
	무	3.82		
2. 나는 현재, 음악 교사 외에 다른 진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유	3.39	1.322	.189
	무	3.09		
*3. 음악 교사가 되는 길이 너무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진로 결정을 미루고 싶다.	유	3.82	1.116	.267
	무	3.58		
*4. 음악 교사가 되고 싶다고 확신하지만, 요즘에는 이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므로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	3.55	0.620	.536
	무	3.41		
5. 나는 오직 음악 교사에 목표를 두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유	3.11	1.923	.057
	무	2.67		
6. 나는 음악 교사로 진로 결정 후,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유	4.19	1.031	.305
	무	4.02		
*7. 음악 교사 진로에 대한 결정을 고민하고 있다.	유	3.60	1.555	.122
	무	3.24		
*8. 나는 음악 교사로 진로를 선택했지만,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수행할지 막막하다.	유	3.18	1.558	.122
	무	2.85		
9. 나는 음악 교육 전공을 스스로 선택했고, 음악 교사 진로는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유	4.18	1.210	.229
	무	3.98		
10. 나는 음악 교사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실기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유	4.16	-0.038	.970
	무	4.17		
11. 언젠가는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아직은 내가 마음에 드는 진로를 찾지 못하였다.	유	4.06	2.457	.015
	무	3.59		
*12. 음악 교사 진로 이외, 나에게 맞는 다른 직업들은 있는지 정보 탐색이 필요하다.	유	3.24	0.966	.336
	무	3.03		
진로결정수준 전체	유	3.71	1.843	.068
	무	3.45		

4)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다음으로 <표 IV-13>은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미결정’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전공 집단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로 검정하였다. 분석 결과 ‘관현악’을 전공한 집단이 교육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차이를 나타냈다($t=2.941, p<.01$). 관현악을 전공한 집단은 교육실습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 미결정의 문항에서 평균 2.40의 진로 확신을 나타냈지만,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은 평균 3.47을 나타내어 교육실습을 경험했을 때 진로의 확신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전공 집단은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미결정 요인 차이

영역	전공	교육실습	n	평균(M)	표준편차(SD)	t	p
미결정	건반	유	19	3.67	1.173	1.044	.302
		무	26	3.34	0.928		
	관현악	유	12	3.47	0.997	2.941	.008**
		무	10	2.40	0.630		
	국악	유	8	3.52	1.505	-0.424	.676
		무	13	3.74	0.917		
	성악	유	14	3.37	0.746	-0.332	.743
		무	8	3.50	1.109		
	작곡	유	9	3.89	0.712	1.545	.142
		무	9	3.24	1.038		

* $p<.05$, ** $p<.01$

다음 <표 IV-14>는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인 ‘결정’ 수준의 전공별 교육실습 차이 결과이다. ‘작곡’을 전공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진로결정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2.074, p>.05$).

<표 IV-14> 전공별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결정 요인 차이

영역	전공	교육실습	<i>n</i>	평균(<i>M</i>)	표준편차(<i>SD</i>)	<i>t</i>	<i>p</i>
결정	건반	유	19	3.71	0.987	-0.213	.832
		무	26	3.76	0.660		
	관현악	유	12	3.76	0.566	1.524	.143
		무	10	3.35	0.709		
	국악	유	8	4.35	0.789	1.498	.151
		무	13	3.82	0.795		
	성악	유	14	3.69	0.569	0.478	.638
		무	8	3.54	0.899		
	작곡	유	9	4.04	0.644	2.074	.055
		무	9	3.31	0.823		

3.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1)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예비음악 교사 128명을 대상으로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두 변수 간에는($r=.323, p<.001$)로 우상향하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표 IV-15>와 같이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결정' 요인은 음악교수효능감의 모든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그 중 '음악 교과 지도' 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r=.382, p<0.01$) 다음으로 '학생 이해 및 존중'($r=.308, p<0.01$)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IV-15>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음악 교과 지도	인성교육	학생 이해 및 존중	교사 간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진로 미결정	.193*	.156	.250**	.140	.086
진로 결정	.382**	.240**	.308**	.179*	.273**

* $p<.05$, ** $p<.01$, *** $p<.001$

2) 음악교수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다음 <표 IV-16>은 음악교수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음악교수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성 검정 결과, $F=14.715(p<.001)$ 으로 통계적으로 타당성을 만족하여 회귀분석에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R^2=0.105$ 로 10.5%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통계량 Durbin-Watson은 1.933으로 2에 근사한 수치를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표준화계수는 $B=0.323(p<.001)$ 으로 나타나 음악교수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32.3%만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을 회귀식으로 나타내면 ‘진로결정수준= 1.169 + 0.323 × 음악교수효능감’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음악교수효능감이 1점 높아지면 진로결정수준은 0.323점만큼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부호가 양수(+)이므로 음악교수효능감이 증가하면 진로결정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16> 음악교수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R ²
	B	표준오차	β			
(상수)	1.169	0.632		1.850	.067	.105
음악교수효능감	0.625	0.163	0.323	3.836	.000	

$F=14.715(p<.001), D-W=1.938$

*** $p<.001$

4. 예비음악 교사의 교육실습경험

1) 예비음악 교사의 교육실습경험에 대한 빈도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을 경험한 단일 집단인 예비음악 교사의 교육실습경험에 대한 수업 참관 및 지도, 만족도와 관련한 설문을 추가로 시행하여 연구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62명의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은 5회 이하의 수업 참관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30회 이하의 참관 횟수는 4.8%에 그쳤다. 또한 수업 지도 횟수와 관련해서는 10회 이하로 수업을 한 예비음악 교사들이 41.9%로 가장 많았다. 교육실습의 만족도와 관련한 설문에서는 ‘매우 만족’이 46.8%로 가장 많았으며, ‘만족’이 35.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비음악 교사들의 교육실습경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17>과 같다.

<표 IV-17> 예비음악 교사의 교육실습경험에 대한 빈도분석

항목	세부항목	응답 수(n=62)	백분율(%)
실습 학교급	중학교	26	41.9
	고등학교	36	58.1
수업 참관 횟수	5회 이하	20	32.3
	10회 이하	14	22.6
	15회 이하	18	29.0
	20회 이하	7	11.3
	30회 이하	3	4.8
수업 지도 횟수	5회 이하	13	21.0
	10회 이하	26	41.9
	15회 이하	8	12.9
	20회 이하	8	12.9
	25회 이하	3	4.8
교육실습 만족도	매우 불만족	2	3.2
	보통	9	14.5
	만족	22	35.5
	매우 만족	29	46.8

2) 교육실습 이후 교직 진로 결정 강도 변화

다음 <표 IV-18>은 예비음악 교사들의 교육실습경험 전후로 교직에 대한 진로 결정 강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예비음악 교사들의 4.8%는 ‘매우 하락’을 보였고, 8.1%는 ‘하락’을 나타냈다. 또한 41.9%는 ‘변화 없음’을 나타냈지만, ‘상승’과 ‘매우 상승’은 각 35.5%, 9.7% 비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교직에 대한 진로 결정 강도에 있어 변화 없음보다 상승의 빈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하며, 교육실습이 예비음악 교사들에게 교직 선택 결정 강화에 도움을 주어 교직에 대한 진로 결정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8> 교육실습 후 교직 진로 결정 강도 변화

구분	세부항목	응답 수	백분율(%)
교직 진로 결정 강도 변화	매우 하락	3	4.8
	하락	5	8.1
	변화 없음	26	41.9
	상승	22	35.5
	매우 상승	6	9.7
	전체	62	100.0

다음은 교직으로의 ‘진로 결정의 강도’의 변화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개방형 문항을 통해 조사된 응답이다. 먼저, 진로 결정의 강도가 상승한 예비음악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자유 기술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예비음악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진로 결정 강도가 상승한 이유에 대하여 학생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했던 경험, 학생들과 소통의 즐거움,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영향에 대한 보람, 지도교사의 피드백, 수업과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만족, 근무 환경을 손꼽았다. 그 밖에 결정 강도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 신중히 생

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전공을 살려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공유하고 배움을 나눌 수 있기에 교육실습을 통해 의지가 더욱 견고해졌다(예비음악 교사 1).

실습을 해보니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들이 적성에 매우 잘 맞았다(예비음악 교사 2).

실습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교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실습 후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 내용을 계획하는지 과정을 세세하게 알게 되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재미를 느꼈다. 학생들과 수업을 통해 상호작용 하는 것도 즐거웠고 수업 자료 구상 및 제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나 자신에게 함으로써 더 좋은 수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또한 담당 교과 선생님의 도움이 가장 컸다. 만약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했다면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더 생기진 않았을 것 같다(예비음악 교사 3).

학생들이 내가 밤을 지새워가며 준비한 활동과 수업내용을 착실하게 따라 와주는 점에 감동받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가르치는 게 처음이라 신기하면서도 낯설고 매우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좋은 추억이다(예비음악 교사 4).

작은 응원의 말에도 크게 감동 받고 힘을 얻는 학생들을 보고 길잡이가 되어주기 위해 교직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먹었다.(예비음악 교사 5).

학생들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 힘이 되었고 근무환경과 워라벨, 근무시간이 생각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 더욱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예비음악 교사 6).

다음은 진로 결정의 강도가 하락한 예비음악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자유 기술을 인용한 것이다. 예비음악 교사들은 낮은 행정업무와 지도교사와의 관계,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응답하였다. 교육실습생의 실습 경험과 신념의 변화는 지도교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연구의 결과(주나현, 2010, p. 74)처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지도교사는 예비음악 교사들의 교사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 요인이기도 하면서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교원양성 기관에서 교육실습의 사전 교육으로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 등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내용의 교육과 지도교사의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교사가 가르치는 직업이라기보다 행정적업무가 더 많음을 깨달았다. 과도하게 많은 행정업무와 업무 강도로 인하여 의지가 약해졌다(예비음악 교사 7).

한 달 이라는 짧은 시간에 적응만 하다가 끝난 느낌 때문일 수 있지만,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 하는 것이 부담이자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전공 교과 수업을 학생들 앞에서 수업하고 진행함에 있어 많은 부담과 압박이 되어 지금 돌아보면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약해진 것 같다(예비음악 교사 8).

실습교 담당 교사의 갑질과 횡포에 의지가 약해졌다. 지도 교사의 모욕적인 말과 피드백 태도를 통해 향후 지도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예비음악 교사 9).

3) 수업 참관 및 지도 횟수, 만족도와 음악교수효능감의 관계

다음으로 예비음악 교사들의 수업 참관 및 지도 횟수, 만족도와 음악교수 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참관 횟수($r=.044$, $p>.05$), 수업 지도 횟수($r=.124$, $p>.05$)와 음악교수 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만족도($r=.294$, $p<.05$)와 음악교수효능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실습경험에서 수업 횟수나 참관 횟수가 수업 전문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김재우, 2014, p. 86)의 결과와도 같다.

<표 IV-19>는 만족도가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5.667$, $p<.05$),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8.6%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755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표준화계수는 $B=.294$ ($p<.05$)로 나타나 만족감이 음악교수효능감에 29.4%만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B 부호가 양수(+)이므로 만족도가 증가하면 음악교수효능감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교육실습 만족도가 높은 예비교사일수록 학생들과 상호작용, 음악 교과 수업, 지도교사와 동료 교육실습생들과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교육실습은 예비음악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9> 만족도가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p	R ²
	B	표준오차	β			
(상수)	3.366	0.221		15.261	.000	.086
음악교수효능감	0.121	0.051	0.294	2.381	.020	

F=5.667(p<.05), D-W=1.755

*p<.05

다음으로 <표 IV-20>은 만족도가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음악 교과 지도, 인성교육, 학생 이해 및 존중, 교사 간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 결과이다. 유의성 검정 결과 만족도가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인성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7.099, p<.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0.6%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표준화계수는 B=.325(p<.01)로 만족감이 인성교육에 32.5%만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B부호가 양수(+)이므로 만족도가 증가하면 인성교육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만족도는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교사 간의 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6.938, p<.05),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9.6%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표준화계수는 B=.310(p<.05)로 나타나 만족감이 교사 간의 관계에 31.0%만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음악 교과 지도(F=2.349, p>.05), 학생 이해 및 존중(F=2.433, p>.05), 학부모와의 관계(F=0.174, p>.05)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표 IV-20> 만족도가 음악교수효능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i>p</i>	<i>R</i> ²
	B	표준오차	β			
(상수)	3.408	0.256		13.303	.000	.038
음악 교과 지도	0.091	0.059	0.194	1.533	.131	
<i>F</i> =2.349(<i>p</i> >.05), <i>D-W</i> =1.490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i>p</i>	<i>R</i> ²
	B	표준오차	β			
(상수)	2.381	0.401		5.936	.000	.106
인성교육	0.247	0.093	0.325	2.664	.010	
<i>F</i> =7.099(<i>p</i> <.01), <i>D-W</i> =1.888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i>p</i>	<i>R</i> ²
	B	표준오차	β			
(상수)	3.634	0.306		11.858	.000	.039
학생 이해 및 존중	0.111	0.071	0.197	1.560	.124	
<i>F</i> =2.433(<i>p</i> >.05), <i>D-W</i> =1.943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i>p</i>	<i>R</i> ²
	B	표준오차	β			
(상수)	3.731	0.261		14.296	.000	.096
교사 간의 관계	0.153	0.060	0.310	2.529	.014	
<i>F</i> =6.938(<i>p</i> <.05), <i>D-W</i> =1.727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i>t</i>	<i>p</i>	<i>R</i> ²
	B	표준오차	β			
(상수)	3.636	0.380		9.576	.000	.003
학부모와의 관계	0.037	0.088	0.054	0.417	.678	

$F=0.174(p>.05)$, $D-W=2.014$

* $p<.05$, ** $p<.01$

4) 수업 참관 및 지도 횟수, 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다음으로 예비음악 교사들의 수업 참관 및 지도 횟수, 만족도와 진로결정 수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참관 횟수($r=.153$, $p>.05$), 수업 지도 횟수($r=.128$, $p>.05$), 만족도($r=.161$,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5) 예비음악 교사들의 교육실습경험에서 도움을 받은 점

본 연구에서는 <표 IV-21>과 같이 교육실습을 통해 예비음악 교사들이 도움을 받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복응답이 가능한 문항을 추가로 설문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과 상호작용 및 소통'에서 가장 많은 응답 수가 나타났으며, '담임, 지도교사의 지도 및 피드백', '학생들의 생활지도', '수업지도안 작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실습에서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현직교사와의 상호작용 및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한 배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교육실습경험이 예비중등음악 교사의 자질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는 개방형 문항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는 결과(박세희, 2018, p. 61)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교육실습은 예비음악 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실무를 직접 체험함에 있어서 학생들과 상

호작용 관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교육실습경험에서 도움을 받은 점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응답 수가 높은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표 IV-21> 예비음악 교사의 교육실습경험에서 도움을 받은 점

응답	응답 수	백분율(%)
학생들과 상호작용 및 소통	45	15.4
담임, 지도교사의 지도 및 피드백	42	14.4
학생들의 생활지도	41	14.0
수업지도안 작성	39	13.4
수업 참관을 통한 교수 방법의 다양화	37	12.7
학교 교육과정 시스템 이해	30	10.3
효과적인 음악 교과 지도	30	10.3
수업 자료 구상 및 제작	28	9.6
전체	292	100.0

V.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실습경험 유무에 따른 예비음악 교사들의 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차이를 분석하여 교육실습의 효과를 검증하고, 예비음악 교사들의 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교육실습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경험 유무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의 평균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음악교수효능감의 세 가지 하위영역 중 ‘음악 교과 지도’는 교육실습 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t=2.075, p<.05$)가 나타났다. 교육실습을 경험한 그룹($M=3.79$)은 경험하지 않은 그룹($M=3.61$)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음악교수효능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생활지도($t=-0.575, p>.05$)’, ‘대인관계($t=0.302, p>.05$)’는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활지도 영역에서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낮은 효능감을 보였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둘째,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의 교직으로의 진로결정 강도 변화와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실습을 경험한 62명의 예비음악 교사들은 교직으로의 진로 결정 강도 변화에 있어 상승(45.2%), 변화 없음(41.9%), 하락(12.9%)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차이($t=1.843, 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예비음악 교사 128명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음악교수효능감의 각 하위 요인인 음악 교과 지도, 생활지도, 대인관계는 진로결정수준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 = .323, p < .001$)를 보였다. 또한 음악교수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32.3%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교수효능감이 예비음악 교사들의 교직 진로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교육실습을 경험한 예비음악 교사의 수업 지도 및 참관 횟수, 만족도와 음악교수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만족도는 음악교수효능감에 29.4%만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업 지도($r = .124, p > .05$) 및 참관 횟수($r = .044, p > .05$)는 음악교수효능감과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수업 지도($r = .128, p > .05$) 및 참관 횟수($r = .153, p > .05$), 만족도($r = .161, p > .05$)는 진로결정수준과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2.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경험은 예비음악 교사의 음악 교과 지도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생활지도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 영역은 교육실습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낮은 효능감을 나타냈다. 이는 교원양성 기관에서는 학습할 수 없었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교육실습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깊은 성찰을 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육실습 전후 모두 학생 이해 지식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는 선행연구(정자현, 2017, p. 46)처럼 예비 교사들은 교육실습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가장 어려워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육실습의 직전 교육 과정에서 이론과 지식 위주의 전달에 치우쳐 있으며, 학생의 발달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기회를 예비음악 교사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재우, 2014, p. 2). 학생과의 관계가 예비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한 선행연구(김재우, 2014, p. 84)는 교육실습 현장에서 예비교사들이 학생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교원양성기관에서 상담, 생활지도, 학급 지도와 같은 사전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교육대학원에서 학습한 전공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수업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것처럼,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실천 지향적인 교육과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그 원인을 4주라는 짧은 교육실습 기간에서 찾을 수 있다. 교과 수업 지도 외에 학생 이해와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을 높이기에는 4주는 불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미 2004년부터 이와 관련하여 교육실습 기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김현미, 2021; 박세희, 2018; 이수경, 201

6; 김재우, 2014; 주희선, 2014; 정재은, 2012; 이태훈, 2005; 조석훈, 2004)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마침내 2021년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으로 실습학기제 도입이 발표되었다. 학생에 대한 이해는 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교과 지도 시에도 적용될 것이다. 음악 교과 수업은 그 특성상 지식 전달보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된다. 학생에 대한 이해가 높은 예비교사는 학생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흥미를 지속시키고, 음악적인 표현과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의 음악적 발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는 음악 수업의 질적 향상과 함께 예비음악 교사의 교수효능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학생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추고 한 학기 동안 교육실습에 임한다면 예비교사들이 느끼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은 감소하고, 생활 지도에 대한 교수효능감은 높아져 예비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교육실습경험은 예비교사들이 음악 교사로의 진로를 확정하는 데 그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실습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교육실습을 경험하면 대체로 음악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진다. 이처럼 교육실습은 교직에 대한 매력을 강화하고, 예비교사의 자기 점검과 진로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서 진로 지도적인 관점으로 보다 중요히 이해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음악교수효능감은 예비음악 교사들의 교직 진로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고자 할 때 자기효능감이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문승태, 2006, p. 18)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음악교수효능감의 증진은 높은 진로결정수준이 되어 진로 준비 노력과 함께 예비교사의 역량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비교사의 교수효능감 개발은 향후 교사가 되었을 때 음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

게 하므로, 예비교사의 심리적 개념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에서 예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개발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만족도가 음악교수효능감에 29.4%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음악 수업, 학생과의 관계, 대인관계에서 높은 효능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업지도 및 참관 횟수는 음악교수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두 변인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예비교사들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실습 환경 개선을 위해 예비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업지도 및 참관 경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12월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이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미래 변화에 대해 준비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첫 번째로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한 ‘실습학기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실습학기제란 종래의 방침대로 한 학기 중 특정 기간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한 학기 전체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교직관을 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교육실습 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에 적합한 실습 운영 모형을 정립하고 실습 지도교사 연수 지원,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청을 연결하는 교육실습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교육부, 2021). 이처럼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와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중등교원 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실습학기제를 통해 교육실습 환경 개선과 예비음악 교사들의 현장 역량이 더욱 함양되기를 기대한다.

3. 제언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생활지도 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비교사들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원양성 기관에서는 예비음악 교사들의 학생 이해와 생활지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관해 연구하고 이를 적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실습 학교 현장에서 또한 예비교사들과 학생들의 관계 증진을 위해 예비교사의 학급 경영, 상담, 학교 행사 참여, 창의적 체험 활동 지도 등의 생활지도 경험 기회를 늘리고,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을 독려할 수 있는 소통형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실습을 경험한 62명에게 추가로 설문을 진행하여 교육실습 만족도가 음악교수효능감에 29.4%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육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 요인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예비음악 교사들의 교육실습 만족도와 관련한 세부적인 경험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면담을 진행하여 예비교사들의 자유로운 응답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실습 환경 개선에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실습학기제의 효과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실습학기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사범대학교에서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예비음악 교사가 한 학기 동안 학교 전체 운영 과정에 참여했을 때,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이해와 실무 역량 제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는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경석, 김명수, 김종건, 노종희, 박재황, 박태수, 신재철, 윤종건, 이칭찬, 장덕담, 서정화, 이윤식(2001).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1).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세종: 교육부.
- 고유정(2021). 교육실습경험이 예비음악 교사의 교육실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영애, 서명선, 안성식(2020).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와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0(4). 49-74.
- 김봉환, 김은희, 김효원, 문승태, 방혜진, 이지연, 조봉환, 허은영 (2017). **진로교육개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선화, 현영섭(2018). K대학 예비중등교사의 다문화교육경험과 다문화교육역량의 관계에 대한 진로결정수준의 상호작용효과. **중등교육연구**. 66(4). 981-1014.
- 김아영(2012). 교사전문성 핵심요인으로서의 교사효능감.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26(1). 63-84.
- 김은진, 이현우(2018). 의사소통 능력과 진로준비행동이 예비교사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 교사효능감과 학교현장실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30(4). 537-558.
- 김재우(2014). 교육실습경험이 사회과 예비교사의 수업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규, 김순미, 안성주 (2021).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나승일, 이명훈, 박미화, 한홍진, 김인곤 (2019).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실습 가이드**. 파주: 교육과학사.
- 문승태 (2006).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결정**. 파주: 한국학술정보.
- 박성혜(2016). 예비교사들의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교직 인성과 홀리스틱 형성. **홀리스틱교육연구**. 20(1). 75-97.
- 박세희(2018). 교육실습경험이 예비중등음악 교사의 음악 교사로서의 자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재복. (2010). 중등학교 교육실습생의 교육실습 인식 및 자기평정도 분석. **교육종합연구**. 8(1), 43-65.
- 서하나(2008). 경험한 교육과정으로서 교육실습이 교직 선택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대리라(2010). 교육실습이 예비중등과학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 및 과학교과 교육학지식(PCK)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신원애, 정상녀, 김경란(2016). 예비유아교사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 **한국유아교육 보육복지학회**. 20(4). 213-238.
- 신명희, 강소연, 김은경, 김정민, 노원경, 서은희, 송수지, 원영실, 임호용 (2020).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혜경, 김수영(2020). 예비음악 교사의 성취목표성향, 진로적응성의 관계-음악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9(4). 75-100.
- 윤언경(2018). 교육실습 유무에 따른 중등예비음악 교사의 음악교수불안 및 음악교수효능감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손희권 (2005). **교육실습의 이해와 실천**. 고양: 서현사.
- 이상은, 김현수(2014). 유아교사의 음악구성요소에 대한 교수실제와 음악교수
효능감과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9(2). 53-76.
- 임성택 (2011). **교사효능감**. 서울: 강현출판사.
- 전미리, 김봉환(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성격 요인과 인지·행동
변인의 영향-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 **진로교육연구**. 28(4). 41-57.
- 정자현(2017). 교육실습경험이 예비중등음악 교사의 교수내용지식(PCK)과 음
악교육신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재(2015).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8(4). 59-77.
- 주나현(2010). 교육실습일지분석을 통한 중등음악과 교육실습생의 수업 경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영(2014). 초등음악 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 따른 교수 행동 분석. **음악
교육연구**. 43(3). 193-217.
- 최미영(2014). 초등교사의 음악교수역량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음악교육공학**.
(21). 1-25.
- 최창섭, 김재덕 (2018). **학교현장 중심의 핵심 교육 실습**. 파주: 교육과학사.
- 한상효, 유평수, 서재복, 최지은 (2009).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파주: 교육
과학사.

ABSTRACT

The Effect of Teaching Practice Experience on Music Teaching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Prospective Secondary Music Teachers

LIM, Ji Yeon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practice and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educational practice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difference in music teaching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educational practice experienc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3rd to 5th semester preparatory music teachers currently enrolled in 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o this end, this survey was conducted at the end of April 2022 as soon as the educational practice is over for 62 people experienced educational practice and 68 people inexperienced educational practice. and It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according to the study in four areas: general characteristics, musical teaching 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and awareness of educational practice experience. In this

study, using SPSS 28.0, we used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ivenes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music teachers according to teaching experience. and also W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s and influences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number of class guidance and visits for 62 people who experienced teaching practice, and the effectivenes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music teachers based on satisfaction.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garding Music Teacher Efficac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rea of "teaching music subjects" depending on whether the preparatory music teachers had teaching practice experience or not. However,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in the areas of "lifestyle guida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What is noteworthy is the fact that the group who experienced teaching practice in the lifestyle guidance area showed lower efficacy than the group who did not. It means that educational practice can improve teacher's belief in teaching ability but does not make a big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students and the school environment and also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a transition to a practice-oriented curriculum that can increase understanding of students.

Second, the group that experienced teaching practice had higher career decision levels than the group that did not, but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the 62 students who experienced

teaching practice had the highest rate of increase in career decision changes to the teaching profession, indicating that teaching practice plays a positive role in strengthening awareness of the teaching profession.

Third, there was a static correlation between preparatory music teachers' Music Teacher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All sub-factors of music teaching efficacy showed a correlation with the 'career decision' factor, but 'music subject guidance' and 'student understanding and respect'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the 'career decision' factor in that order. Next,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Music Teacher Efficacy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career decision level as a dependent variable revealed that Music Teacher Efficacy affects career decision level by 32.3%. This means that Music Teacher Effica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cision of a career path for preparatory music teachers. In other words, increasing preparatory music teacher's Music Teacher Efficacy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promo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r the teaching profession, improving preparatory teacher's competence, becoming a future teacher, and enabling qualitative improvement of music education. be done.

Fourth,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group's satisfaction with teaching practice on Music Teacher Efficacy and it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f 29.4%. However, the class instruction and the number of visits did not show a direct correlation with the two eccentricities of the music teacher's Music Teacher Efficacy and the career decision level. As a result, we can see

it is more important than class guidance and observation experience to set up measures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preparatory teachers in order to improve the educational practice environment that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eparatory teachers in teaching music and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Finally, teaching practice should be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of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and a new teaching practice ecosystem should be created so that the educational process of schools and graduate schools can be organically linked without being separated. It is hoped that preparatory music teacher's music teaching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will be positively formed, and that the on-site competence for schools and students will be cultivated through effective teaching practice.

부 록

<부록 1> 예비음악 교사의 일반적 특성 설문지

<부록 2> 음악교수효능감 설문지

<부록 3> 진로결정수준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임지연입니다.

본 연구는 예비중등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실습경험이
예비음악교사들의 교수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총 5-7분 이내이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성의껏 답해주신 이 설문지는 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통계조사법 제 33조의 비밀 보호 원칙에 따라
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전공

임지연

bibilys031@naver.com

<부록 1> 예비음악 교사 일반적 특성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해당하는 곳에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남성 ②여성
2. 교육실습 유무 : ①없다 ②있다
3. 실습 기간: _____ (미실습자, 표기 X)
4. 현재 재학 중인 학기 : ①3학기 ②4학기 ③5학기
5. 실습학교 : ①중학교 ②고등학교 (미실습자, 표기 X)
6. 수업횟수: ____회 (미실습자, 표기 X)
7. 수업 참관 횟수 : ①5회 이하 ②10회 이하 ③15회 이하 ④20회 이하
8. 연령대 : ①20대 ②30대 ③40대
9. 전공 : ①건반 ②관현악 ③성악 ④작곡, 이론과 ⑤국악
10. 교육실습 만족도 : ①매우 불만족 ②불만족 ③보통 ④만족 ⑤매우 만족

11. 귀하는 교육 실습을 통하여 어떤 점을 도움 받았습니까? (복수 응답, 기타 의견 작성 가능)

①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및 소통 ②학생들의 생활지도(조·종례, 급식지도, 청소 등) ③수업지도안 작성 ④효과적인 음악 교과 지도 ⑤담임,지도교사의 지도와 피드백 ⑥수업 참관을 통한 교수 방법의 다양화 ⑦수업 자료 (ppt, 학습지 등) 구상 및 제작 ⑧학교 교육과정 시스템의 이해

12. 교육 실습을 전후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진로 결정 강도'에 얼마나 변화가 있습니까?

①변화 없음 ②상승 ③매우 상승 ④하락 ⑤매우 하락

13. 귀하의 결정 강도에 변화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 (자유 기술)

<부록 2> 음악교수효능감 설문지

교수효능감이란 예비교사가 스스로의 교수 능력을 얼마나 효과적이라 지각하는가에 관한 개념입니다. 즉, 교사 자신의 교수 능력의 효과성에 대한 개인적 판단, 기대, 신념을 의미하는 주관적인 심리적 개념입니다. 교수효능감에는 교과 지도 부분,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문항은 교과 지도 16문항, 생활지도 7문항, 대인관계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위 요인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음악 교과 지도	1	나는 음악 수업 주제와 관련된 흥미 있는 동기유발을 조직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					
	2	나는 수업 한 차시를 계획하는데 있어 도입-전개-정리 내용을 잘 조직하여 수업의 흐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3	나는 45~50분간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적당한 수업 내용의 양을 계획하여 시간 내 학습 분량을 마칠 수 있다.					
	4	나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알기 쉬운 설명과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자신이 있다.					
	5	나는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차를 고려하여 수업할 수 있다.					
	6	나는 수업에 필요한 음악실기 능력에 있어 학생들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는 교사가 될 수 있다.					
	7	나는 공개 수업을 하게 되면,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					
	8	나는 수업 관련 디지털 미디어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수업 자료를 만드는데 자신이 있다.					
	9	나는 원격 수업 시 다양한 원격 수업 도구(구글 클래스룸, 카훿, 멘티미터, 패들렛 기타 등)인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자신이 있다.					
	10	나는 다양한 발문을 하여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다.					
	11	나는 학생들의 음악 수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12	나는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수업을 할 수 있다.					
	13	나는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의 예기치 못한 질문과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14	나는 음악 수업에서 학생의 활동 또는 반응에 대한 긍정적이고 정확하며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15	학습 목표와 내용,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16	나는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인성 교육	17	나는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형성 지도에 자신이 있다.					
	18	나는 수업 중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19	나는 생활지도에 있어서 학교 부적응학생을 지도하는 데 자신이 있다.					

학생 이해 및 존중	20	나는 학생 지도 시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21	나는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상담하는데 자신이 있다.					
	22	나는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칭찬과 피드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23	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교사-학생 간의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사 간의 관계	24	나는 학교 관리자 및 동료 교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25	나는 동료 음악 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26	나는 동료교사와 교수방법을 공유하고 수업 나눔과 참관을 통해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할 것이다.					
학부 모 와의 관계	27	나는 학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28	나는 학부모에게 학교 활동에 대한 협조 및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29	나는 학부모 상담에 자신이 있다.					

<부록 3> 진로결정수준 설문지

다음은 교직으로의 진로결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체크해주세요.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음악 교사로 진로를 결정했기 때문에 졸업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다.					
2	나는 현재, 음악 교사 외에 다른 진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3	음악 교사가 되는 길이 너무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서 당분간 진로결정을 미루고 싶다.					
4	음악 교사가 되고 싶다고 확신하지만, 요즘에는 이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므로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5	나는 오직 음악 교사에 목표를 두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6	나는 음악 교사로 진로 결정 후,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7	음악 교사 진로에 대한 결정을 고민하고 있다.					
8	나는 음악 교사로 진로를 선택했지만,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수행할지 막막하다.					
9	나는 음악교육전공을 스스로 선택했고, 음악 교사 진로는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10	나는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해 실기 능					

	력을 갖추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11	언젠가는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아직은 내가 마음에 드는 진로를 찾지 못하였다.					
12	음악 교사 진로 이외, 나에게 맞는 다른 직업들은 있는지 정보 탐색이 필요하다.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